

신안군,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임대사업 효과 높아

흑산도서 청년소득 임대어선 4척 취항식 개최 현재까지 군비 27억 지원 8척 어선 임대 운영

신안군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올해로 3년째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으로 완료된 청년소득 임대어선 4척에 대하여 미뤄왔던 취항식을 지난 18일 흑산도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이후 전국에서 신안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비 27억원이 지원되어 8척의 어선

을 임대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5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어선과 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어업인은 연간 사업비의 0.5%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어업을 경영하는 형태로, 임대료 납부와 함께 원금 상환을 완료하면 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2021년 사업 추진에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에 215명의 어업인이 101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더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2년 국비보조사업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귀어 청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천사섬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이 목표이며, 천사8호에 이어 천사100호, 천사200호까지 탄생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젊어지는 섬, 청



청년이 돌아오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어선은 흑산 4척, 비금·중도·도초·하의면에 각 1척씩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천여만원의 임대료와 원금이 징수되었으며, 7억5천만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회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의회의원, 실과소장, 전통시장상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본 용역은 관내 인정 전통시장 3개소(굴비골영광시장, 영광터미널시장, 영광고추특화시장)와 비인정 전통시장 1개소(영광전통시장 5일장)에 대한 5개년 활성화계획 수립을 목표로 전통시장 상권분석,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시장별 체계적 활성화 방안 수립하였다.

시장 상인들의 설문조사 및 각종 사례연구를 토대로 시장별 맞춤형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결과, 굴비골영광시장의 경우 시장진입로 확장공사, 영광터미널시장은 화장실·상인회 사무실·고객 센터 조성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영광고추특화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설치 및 부분개방형 건물 형태 조성, 전통시장 5일장은 인정 시장 등록이 활성화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지역특화작물 멜론, 올해 첫 출하 8월부턴 외국바이어와 활발한 접촉 통한 수출 12억 목표



올해 영암멜론이 5월 17일 순천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첫 출하 소식을 알렸다.

이번에 출하되는 영암멜론의 물량은 약 1.5톤 정도로 알려졌다. 첫 출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만나 볼 수 있는 영암멜론은 영암의 풍부한

일조량과 최적의 생육환경 속에서 재배되어 풍부한 즙과 높은 당도 덕에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110농가가 63ha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균일한 맛과 변함 없는 품질, 안정적인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기상여건이 좋아지고 코로나 19가 호전되면 국내 공판장, 백화점 등 국내 대형 유통채널은 물론 홍콩, 대만 등 동남아시아의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내다 봤다.

2019년에는 90톤에 4억원을 수출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중단과 수해로 인해 생산량의 감소로 2톤에 7백만원 수출에 그쳤다. 올해는 12억원을 목표로 8월부터 외국바이어와 활발한 접촉을 통해 수출길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군은 올해 시설원에 등의 토양환경개선과 각종 도양 병해충,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원에 및 노지채소 농가에 보조금 9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5월 혈압 측정의 달'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 활동

함평군은 지난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 당뇨 질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 혈관 숫자알기 캠페인과 1:1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내 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발병 후에도 뚜렷한 증상이 없어 지각이 어려운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자신의 혈관 숫자를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혈압·혈당 측정과 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정

보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리플렛 및 마스크 등 건강관리 홍보물을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고혈압의 날(매년 5월 17일)은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고혈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고혈압연맹(WHL)이 지정했으며, 매년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 코로나19 종합 정보 알림 문자 서비스

목포시가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종합 정보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시민에게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재난지원금 안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및 예약 안내 등 코로나 관련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4일부터 각종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정보 알림문자(SMS) 수신 동의서'를 접수한다. 이어 오는 6월부터 연중 홍보 사항이 필요할 경우 문자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무안군 환경면, 청렴 자가진단 캠페인

무안군 환경면은 5월 14일 '청렴한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생활 속 청렴 실천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 자가진단 캠페인을 통해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가문답을 작성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일상 속 청렴 의무를 다하며 실천 과제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함

으로써 청렴 실천의지를 다졌다.

조수정 면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해야한다"며 "면민에게 신뢰 받는 환경면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면은 지난 3월부터 직원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월 1회 청렴한 환경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



며,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청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